주민의식 측정·분석을 통한 낙후지역 재생수단의 선택에 관한 연구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심상점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ow to Choose the Regeneration Instrument of Depressed Region Through Residents Consciousness Measurement and Analysis
- Focusing on the Main Shop Streets in Gyeonggi-do Pocheon-city Gwanin-myeon -

김 종 수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제1저자)
허 훈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Abstract

Chong Soo Kim / Hun Huh

The village community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a way to resolve the aging problem and revitalize the region. This is because village-based regeneration can be a realistic strategy as a concrete mean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by maximizing the potential resources of the region. To this end, efforts are being made to revitalize communities and lead local resi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Tandong-ri & Chogwa-1ri, Gwanin-myeon, Pocheon-si. The center of the town, built by the US Army in 1954, is one of the most underdeveloped in the metropolitan area.

Especially, the redevelopment of this area has been hardly achieved, and the scenery of shops and shops in the 1960s and 1970s is well preserved, and it can be regarded as a foundation to revitalize this area by cultural power. By taking the concept of 'the Museum as it is(Eco Museum)', we sought to revitalize the area by highlighting the history of the area.

In order to find out the specific means of recycling that can make use of local characteristics, we conducted interviews and surveys with various subjects such as local residents, central merchants' associations, residents' self-governing committees, and public official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analysis, it suggested the resurgence of the economy of the alley an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al town development project.

주 제 어: 마을공동체, 마을재생, 에코 뮤지엄, 지역 주민, 주민자치위원

Keywords: Village Community, village revitalization, Eco Museum, Local Residents, Residents' Self-governing Committees

I.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사회적 과제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역동적이며 활기차게 하는 마을공동체가 지방자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를 위해 마을들의 잠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과 지역 사회 스스로가 생활공간과 사회 경제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마을 재생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지역의 주민들과 행정기관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하며 이때 주민들의 의견과 참여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쇠퇴도 자료(2015.12)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기도내 549개 읍·면·동 중 62.7%인 344곳이 최근 30년간 인구가 20%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연속 인구가 감소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조사됐다. 또 37.2%인 204개 읍·면·동은 전체 건축물 중 노후건축물(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노후건축물 지역'으로 분류됐다. 22.8%인 125곳은 최근 10년간 5% 이상 사업체가 감소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연속 사업체가 감소한 '사업체 감소 지역'이었다. 이 3개 지표 중 2개 지표 이상에 해당하는 읍·면·동이 '쇠퇴지역'으로 분류되는데, 도내에 모두 212개 읍·면·동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읍·면·동의 38.6%에 달하는 것이며 이 지역에 당시 기준 도민 1천252만 여명의 28.9%인 362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도내 쇠퇴지역은 2013년 185개 읍·면·동에서 2014년 195개 읍면동으로 확대되는 등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매년 평균 6.6%씩 쇠퇴지역이 늘어나는 것이며,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경기연구원 2017.4.28., 연합뉴스 2017.4.30.).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와 초과1리는 과거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살면서 경제활동이 활발하던 지역이었으나, 생활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외곽 지역이 점차 개발돼 쇠퇴가 빨라지는 등의 중심상점가는 수도권 내에서 가장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전쟁의 상흔의 역사적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지역으로 지역의 부활을 관심 있게 주목받고 있다. 재개발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에 의해 철거에 의한 기존의 재개발 방식이 아닌 현재 동네의 원형을 유지하고, 취약한 주거 환경은 물론 교육, 문화, 복지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요구되며 지역 주민의 역량과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사회·경제·역사적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중심상점가재생을 통한 골목 경제권의 부활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생적 발전을 위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구조사방법은 이 지역의 장점 및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중심 상인회,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등 지역 인사, 각계 전문가의 인식과 의식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역의 상생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상 지역은 60, 70년대 상점과 상점거리풍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이를 문화력에 의해 재생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개발위주의 지역

만들기를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박물관(에코 뮤지엄)'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의 역사를 살리고 지역주민들이 살아 갈 수 있는 재생계획을 세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수단의 선택을 통하여 골목경제권의 부활과 함께 보다 올바른 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지역발전의 새로운 대안-마을 만들기

근대화론의 시기에 국가는 투자대비 효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사회간접자본투자, 공단의 건설, 기업유치 촉진 등의 정책을 펼치게 된다. 그 결과 국토의 지역 간에는 불균형지역성장이 나타나게 되고, 문제지역 혹은 낙후지역이 나타나게 된다. 이들 지역에 국가는 최소 행정수요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지역발전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때 도입하는 수단이 보조금지급, 낙후지역정책 등의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국가재정의 증가시기에 이러한 지역발전이론과 이를 근거로 한 지역발전정책들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지역발전에 대한 전통적 이론의 시각은 발전의 잠재력의 요소로 도로, 철도, 통신 등 물리적 하부구조의 발달, 양질의 노동력 및 우수한 과학기술인재의 확보, 기술력이나 연구개발 인력의 존재 등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을 통해 물리적 하부구조를 개선하거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유치하면 발전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전통적인 지역발전이론에 의한 정책개입은 지역문제의 증상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근본적 발전동력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리적인 발전은 공동체의 발전과 동반하여 이루어지지 못했고, 자치와 자율보다는 의존과 타율에 기대는 지역이 많아졌다. 소위 지역발전의 중요변수가 외생적 변수에 의존하는 한 그 발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반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새로운 지역발전의 이론은 이러한 반성에 입각하여 지역발전의 더욱 중요한 요소는 지역 내 각 주체간의 협동체계의 구축여부,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의한 지속가능성, 지역의 문제를 자치와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해가고자 하는 의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의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같은 지역 내의 내생적 요소들로 보았다. 이러한 사조는 지역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지역주체들의 신뢰와 협동이 늘어야 하고, 특히 물리적 접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창조적 발상에 의한 문화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로인하여 새롭게 성공적인 지역발전을 하는 지역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늘어나고, 상상력이 풍부한 개인, 창의적인 조직, 뚜렷한 목적을 공유하는 정치문화가 배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을 창조도시라고 부르고 있다(임상오 역, Charles Landry, 2005).

마을 만들기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가 연대·협력하여 주변의 거주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며 마을의 활력과 매력을 향상시켜 '생활 질의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지속적인 활동이다(일본건축학회, 2004). 일본에서는 1970년대 이후에 '마을 만들기'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근대도시계획의 반성으로 20세기 후반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내용으로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근거로 제시된 마을 만들기의 기본원칙은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인접화, 고학력화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거주와 생활의 장소인 마을을 유지하고, 관리하며, 창조하는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원칙으로 공공복지의 원칙, 지역성의 원칙, bottom up의 원칙, 장소문맥의 원칙, 다양한 주체에 의한 협동의 원칙, 지속 가능성과 지역 내 순환의 원칙, 상호편집의 원칙, 개인의 개발과 창조성의 원칙, 환경공생의 원칙, 글로 컬(Glo-Cal)의 원칙 등에 의해 마을 만들기를 성립·실천을 하여 왔다(김선직, 2009).

2. 마을 만들기의 의미와 목적

마을 만들기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체가 연대 및 협력하여 주변의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협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타 지역과의 교류와 협동에 의해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공간적 개념과 공동체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총칭하는 광의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김선직, 2009).

마을 만들기는 공공의 목적 속에서 마을의 환경을 위해 주민이 힘을 합쳐 실현하는 것이 기본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공공의 목적에 맞추어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마을 만들기'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켜 지역사회에서의 주거 환경이나 종합적인 생활기반의 향상 없이는 공공복지의 실현도 안정된 생활의 실현도 어렵다는 마을 만들기가 사회적인 합의로 인정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공공복지를 실현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에서 마을 만들기의 내용이나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 만들기'의 기본적인 목표는 넓은 의미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공공복지 실현 도모이며, 구체적으로는 주변의 거주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마을의 활력과 매력을 높여, 생활 질의 향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공공의 복지라는 것은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확보함은 물론이며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협조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을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목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첫째로 지역의 활동중심이 되는 상점가의 재생이 필요하다. 둘째는 누구라도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가 되어야 한다. 셋째는 도보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는 보행중심의 마을을 만들어야 하며, 넷째로 마을경관의 정비와 역사·문화·예술장소의 창조와 재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는 다양한 생활상이 공존하면서, 많은 문화가 공생하는 지역사회가 되어야 하

며, 여섯째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콤팩트한 마을이 구성되어야 하고, 일곱째는 자연, 생태계와 공존하는 마을 조직이 재생되어야 한다. 여덟째로는 사람을 따뜻하게 맏이 하여 주고, 다양한 교류 기회가 있는 마을 만들어야 한다. 아홉째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에 의한 순환형 지역경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공동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 물론 마을 만들기가 한 번에 이들 모두를 수용할 수는 없다. 지역사회에서 마을 만들기의 목표를 선택하여 그들을 프로그램화시켜 최종적으로 이것들을 서서히 실현시키는 것이 끝없는 마을 만들기의 과정인 것이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국내 연구는 1990년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2007년과 2012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이는 사회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2007년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시범사업이 본격화되었고, 2012년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지자체별로 크게 확산되었다(임남기·이태문, 2017; 신화경 외, 2017).

2017년 9월 현재까지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학술등재지 및 후보지 기준으로 약 200여 편 남짓으로 조사되었다. 선행연구들의 큰 줄기는 마을 만들기가 시행되는 지역의 사례분석과 성과평가와 관련된 연구(안종현, 2007; 신중진·신효진, 2008; 안상유, 2013 등), 마을 만들기 문제점 분석 및 성공을 위한 제언과 지원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이석현, 2012; 문종화, 2012; 임경수·하태경, 2013 등), 주민의 참여와 연대, 참여주체 간 관계 등과 같은 사회적 역량을 강조하는 연구(이지혜 외, 2009; 신중진·송승현, 2010; 이병대·심재승, 2012; 이민우 외, 2017; 조소진·정환영, 2017 등)로 구분될 수 있다. 이 밖에, 비교대상을 일본·미국·영국 등으로 선정하여 벤치마킹 방안을 제안한 연구도 일부 있었다(김영주·박남희, 2012; 이병대·심재승, 2012; 이재준 외, 2013 등). 그리고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법령을 검토한 연구도 일부 확인되었다(여관현·계기석, 2013; 신화경 외, 2017 등).

포괄적인 관점에서 기존 연구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마을의 경쟁력 강화 방안, 참여 주체들의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였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 확대를 강조하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많은 연구들이 물적 자본, 주민의 참여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하향식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연구들도 일부 있다는 점이 한계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역의 사회적 자본, 역사·문화적 자산의 활용이 중요함을 말미에 강조하지만 구체적이거나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연구의 방법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질적 연구방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최근에는 주민의 인식도 조사에 기반한 양적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민의 인식도 조사는

참여에 대한 기본 인식과 만족도 등과 같은 기초통계에서(전원식 외, 2008; 이석현, 2012 등),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등과 같은 추론 통계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민우 외, 2017; 송용훈·정문기, 2017; 진재문, 2014 등). 하지만 기존의 양적 연구는 사업전후 및 행정지원 만족도 조사, 삶의 질 인식, 공동체의식, 참여의도 조사 등에 국한되어 현실적인 정책수단과 함의점, 대안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의 대상을 살펴보면, 가족 친화형·도시지역·녹색성장·농촌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 등으로 유형이 분류되나, 연구의 대상이 비교적 넓은 법위의 사업들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연구대상의 속성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제언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경우가 많다(심익섭·심화섭, 2016). 연구의 대상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대상지역은 정읍시, 순천시, 제주 가시리·선흘 1리 등을 비롯하여 부산시, 광주시 북구, 서울시의 한옥마을·장수마을·정릉1동, 북정마을 등으로 고령화 및 낙후된 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를 고려하면, 농촌지역의 지역 발전 전략으로 마을만들기 연구가 더 많이 축척될 필요가 있다 사료된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과 수단을 제안한 연구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고령화 및 낙후지역의 발전 대안으로서 마을 만들기의 가치와 비전을 검토하고 지역의 역사·지리·문화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정량적 연구가 부족한 점, 측정문항이 지나치게 일반화 및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전적 차원의 설문지를 설계하고 이를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주민참여와 관련한 기술통계나 ANOVA 및 회귀분석 등과 같은 추론통계의 유형에 국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지역의 사회·역사·문화적 배경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안하기 위한 설문지를 연구 대상에 맞게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과 지역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주민의 연대, 참여 주체간의 관계, 운영 프로그램의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연구의 대상이다. 본 연구는 고령화된 낙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해법으로 마을 만들기를 제안하며,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와 초과1리'에 공간적 범위를 국한하였다. 지역의 문화 및 역사자원을 활용한 현실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타 농촌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후속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Ⅲ. 조사설계 및 응답자 특성

1. 관인면 중심상점가의 특성

포천시 관인면은 1,546세대에 3,128명(2016.12.31. 기준)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심상점가는 접경지대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고 2017년 6월 개통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 방문이 가능해졌다. 터미널 로터리를 중심으로 세 갈래 길이 나있는데 북쪽의 탄동길. 가운데 탄동1길, 남쪽의 관인길이다. 상점가는 관인로와 탄동1길에 위치한 건축물들이 주 상점로이며, 탄동길은 상점과 주택이 어울려 있다. 약 100여 호의 건축물에 150여개의 지번이 부여 되어 있으며, 이중 약 60%가 상점을 운영하였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 중 약 20% 정도가 빈상점이거나 개점 휴업상태이다.

중심상점가는 미 40사단이 유엔전부복구계획에 의거 마을 조성 시 현재의 상점가를 40사단 마크를 본떠 조성되었으며, 한국전쟁 후 미군부대 및 국군이 주둔하며 기지경제가 활발하였으나, 1970년대 미군이 떠나고 1980년대 한국군의 상당수가 철원군 동송읍으로 이전하면서 현재는 60~70년대 거리풍경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상점가가 쇠퇴되었다. 게다가 군사시설보호지역, 상수원 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있고, 도로사정으로 접근성이 좋지 않아 좀처럼 발전의 계기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70년대 전후의 가로풍경이 그대로 남아있어 살아있는 박물관으로서의 시가지 풍경을 살리고 상점가의 매력 요소를 더한다면 도시재생의 사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탄강 일원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되고, 해발 200m의 고지대에 토지비전으로 인한 400ha의 냉정평야가 있어 포천시 최고의 미작지대로서 지역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접객장소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따라서 60~70년대 상점과 상점거리풍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이는 문화력에 의해 재생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이에 개발위주의 지역 만들기를 벗어나 지역의 역사를 살리고 지역주민들이 살아 갈 수 있는 재생계획을 세우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골목경제권의 부활을 꾀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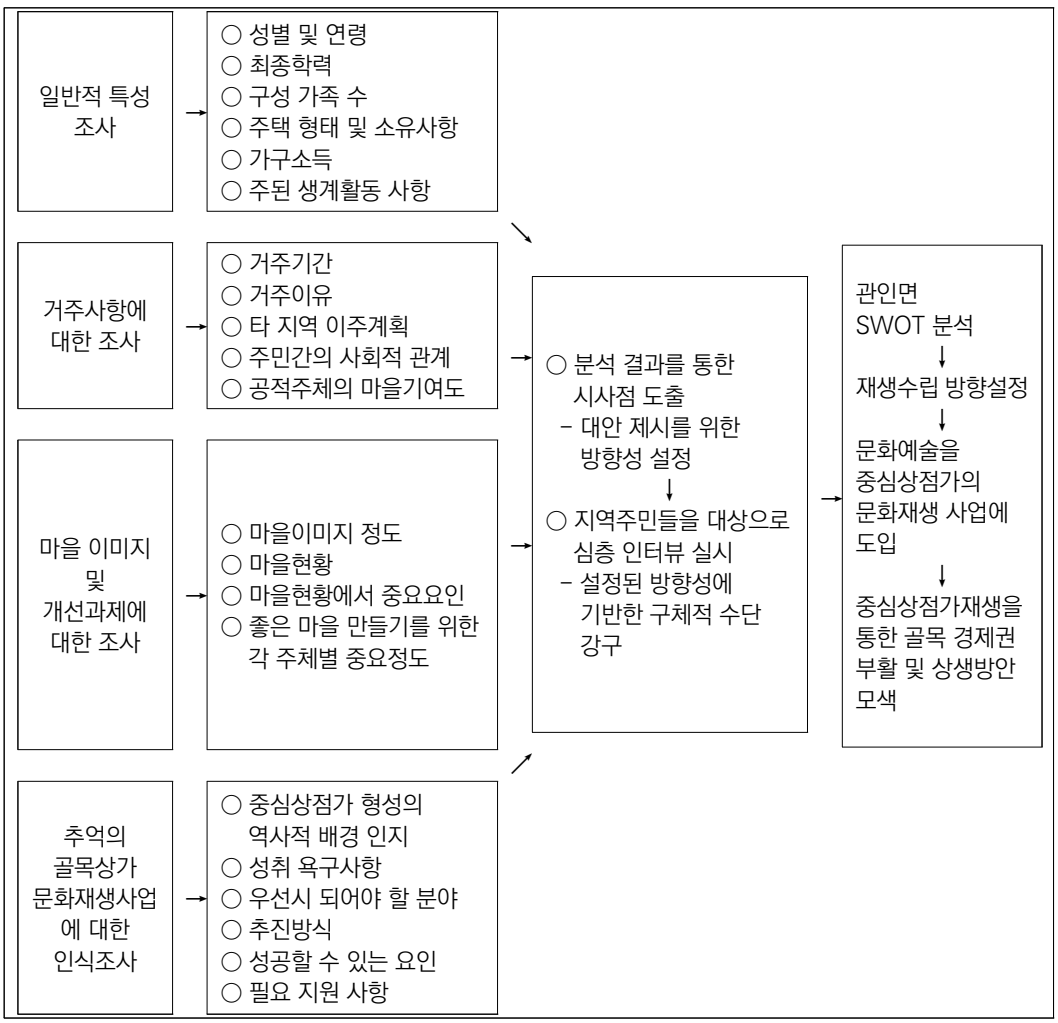
2. 연구 설계 및 평가구성체계

포천시 관인면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중심상가 상인회, 마을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대표, 면사무소의 공무원 등 지역 인사를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면서 실현가능한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6.10.10~11.6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해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유용하게 사용된 표본 수는 총 110부로 SPSS 19.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인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설문은 기본적으로 Likert의 5점 척도를 사용했으며, 필요한 경우 제도설명과 예시를 제시하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문항별로 제시되는 항목의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서술형 문항을 보완적으로 가미하였다.

본 설문은 〈그림 1〉과 같은 연구설계 모형에 의해 일반적 특성, 거주사항, 마을 이미지 및 개선과제, 추억의 골목상가 문화재생사업 성격과 주변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독자적인 설문내용을 토대로 한 분석을 통해서 지역주민과의 상생적 관계를 정립하고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사업의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림 1〉 연구 설계

3. 응답자 특성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지역의 중추 연령대는 50~70세(70.0%) 사이로 상당히 고령화된 낙후지역이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1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46.4%)을 차지하고 있어 높은 연령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학력은 높은 편이다. 농촌지역 관인면의 지역 특성상 '2인 가구'(45명, 40.9%)에 '단독가구'(76명, 69.1%), '자가'(96명, 87.3%)가 대부분으로 상당수가 월평균 소득은 150~250만 원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일반적 특성에 대한 조사

구 분		응답 빈도	비율 (%)	구 분		응답 빈도	비율 (%)
성별	남	67	60.9	주택 소유 형태	자가	96	87.3
	여	43	39.1		전세	3	2.7
	무응답	0	0		월세	3	2.7
	계	110	100.0		무상이용	7	6.4
연령대	30세 미만	2	1.8		기타	1	0.9
	30 ~ 39세	8	7.3		무응답	0	0
	40 ~ 49세	16	14.5		계	110	100.0
	50 ~ 59세	52	47.3	소득	100만원 미만	18	16.4
	60 ~ 69세	25	22.7		100~150만원 미만	12	10.9
	70세 이상	6	5.5		150~200만원 미만	20	18.2
	무응답	1	0.9		200~250만원 미만	26	23.6
	계	110	100		250만원 이상	32	29.1
학력	초등학교 졸업	4	3.6		무응답	2	1.8
	중학교 졸업	17	15.5		계	110	100.0
	고등학교 졸업	51	46.4	주된 생계 활동	상용직근로자	11	10.0
	전문대학 졸업	28	25.5		임시직근로자	5	4.5
	대학교 졸업이상	10	9.1		일용직근로자	2	1.8
	무응답	0	0		자활근로자	0	0
	계	110	100.0		공공근로자	0	0
가족수	1인 가구	7	6.4		고용주	2	1.8
	2인 가구	45	40.9		자영업자	38	34.5
	3인 가구	11	10.0		농림축어업자	27	24.5
	4인 가구	31	28.2		무급가족종사자	2	1.8
	5인 가구 이상	16	14.5		가사·육아	1	0.9
	무응답	0	0		연금생활자	6	5.5
	계	110	100.0		학생	1	0.9
주택형태	단독주택	76	69.1		실업자	0	0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빌라, 맨션 등)	19	17.3		기타	3	2.7
	영업용 건물 내 주택	13	11.8		무응답	12	10.9
	기타	2	1.8		계	110	100.0
	무응답	0	0				
	계	110	100.0				

Ⅳ. 조사·분석

1. 조사대상자의 거주사항에 대한 조사

조사의 주요내용은 관인면의 거주하는 기간, 거주 이유, 타 지역 이주계획 및 이유, 본인의 주민간의 사회적 관계 정도, 공적주체의 마을기여정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거주기간 및 거주 이유에 대한 조사

조사 대상자들의 거주기간 및 이유에 대한 분포를 〈표 2〉와 같이 살펴보면, 주민의 상당수가 관인면에서 '30년 이상'(71명, 64.5%)살고 있으며, 고향(47명, 42.7%)이고 직장(22명, 20.0%)과 자연환경(18명, 16.4%) 때문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거주기간 및 거주 이유에 대한 조사

구분	빈도	비율(%)
5년 미만	8	7.3
10년 미만	6	5.4
15년 미만	7	6.4
20년 미만	5	4.5
25년 미만	7	6.4
30년 미만	6	5.5
30년 이상	71	64.5
계	110	100.0
이웃이 친절해서	7	6.4
자연환경이 좋아서	18	16.4
직장(일자리) 때문에	22	20.0
자녀 교육 때문에	0	0
집값(임대료)이 싸서	3	2.7
교통이 좋아서	0	0
고향이어서	47	42.7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없어서	7	6.4
기 타	0	0
계	110	100.0

2) 타 지역 이주계획에 대한 조사

현재 관인면에 살고 있는 조사 대상자들에게 앞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과 떠나려는 이유에 대해 〈표 3〉과 같이 살펴보았다. 타 지역 이주 계획에 대해서는 '이사할 생각이 없다'라

는 응답이 전체 110명 중 92명(83.6%)으로 제일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뒤이어 '이사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서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12명(10.9%)으로 높았다. 이사할 생각이 있는 대상자의 이사 이유는 지역이 낙후되고 쇠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타 지역 이주계획 및 이주 이유에 대한 조사

구분	빈도	비율(%)
이사할 생각이 없다	92	83.6
이사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다	12	10.9
1~2년 내에 이사할 생각이 있다	2	1.8
3년 이후에 이사할 생각이 있다	3	2.7
무응답	1	0.9
계	110	100.0
이웃과의 관계 악화 때문에	2	1.8
환경(공해, 악취 등의 문제)	1	0.9
직장(일자리) 때문에	4	3.6
자녀 교육 때문에	2	1.8
집값(임대료)이 비싸서	0	0
교통 불편	1	0.9
문화적 소외(극장, 도서관등의 부재)	0	0
지역이 낙후되고 쇠락되어서	5	4.5
기 타	3	2.7
무응답	92	83.6
계	110	100.0

3)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 조사

조사 대상자의 주변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마을 이웃과의 신뢰 정도', '마을에 대한 애착 정도', '이웃과의 소통 정도', '품앗이 정도', '이웃과의 상의 정도'로 구성해서 〈표 4〉와 같이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다섯 개 부문 모두, 보통 이상의 긍정적 인식도를 나타냈다. 그 중 '마을에 대한 애착 정도'는 4.057로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마을 이웃과의 소통정도' 3.953, '마을 이웃과 신뢰정도'는 3.843, '마을 이웃과의 품앗이정도'는 3.736, '마을일의 참여 정도'는 3.533, '마을 이웃과의 상의 정도'는 3.198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주민들 간의 사회적 관계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4〉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 조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결측(N)
①마을 이웃과의 신뢰 정도	3.843	0.856	1.000	5.000	1
②마을에 대한 애착 정도	4.057	0.954	1.000	5.000	3
③마을 이웃과의 소통 정도	3.963	0.788	2.000	5.000	2
④마을 이웃과의 품앗이정도	3.736	0.887	1.000	5.000	3
⑤마을 이웃과의 상의 정도	3.198	1.125	1.000	5.000	3
⑥마을일의 참여 정도	3.533	1.101	1.000	5.000	4

① 마을에 함께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② 다른 마을로 이사 가야 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이 그리워 질 것이라 생각합니까?
③ 이웃과 종종 이야기를 잘 나누십니까?
④ 종종 이웃을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으십니까? (예: 집수리 등)
⑤ 종종 이웃과 중요한 개인문제나 감정문제에 대해 상의하십니까? (예: 교육, 이혼 등)
⑥ 마을에서 다툼이 벌어진다면 마을사람들이 나서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주. 5점 리커트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에 대한 인식도가 높음

4) 공적주체의 마을에 대한 기여도 조사

관인면의 발전 및 마을의 활성화에 공적인 주체(행정기관)가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표 5〉와 같이 조사한 결과, 주체별로 다소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주민들은 마을에 가장 기여하는 주체가 면장(3.925)이라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장과 시·도의원도 각각 3.593, 3.108 순으로 보통이상의 긍정적 인식도를 나타냈다. 반면, 국회의원은 2.549로 보통 이하의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고, 시장도 2.700으로 다소 부정적인 편이다. 마을에 대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행정기관의 기여도는 상호관계에 있어 대면적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국회의원', '시장'과 같이 거리가 멀수록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고, '면장'과 '이장'처럼 가까울수록 신임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할 때, 현재와 같이 기여도가 낮은 '시장'(포천시)과 '국회의원' 주도 하의 하향적인(top-down) 방식의 사업 집행은 지역주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표 5〉 공적주체의 마을에 대한 기여도 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결측(N)
국회의원	2.549	0.991	1.000	5.000	8
시·도의원	3.108	0.964	1.000	5.000	8
시장	2.700	1.096	1.000	5.000	10
면장	3.925	0.943	1.000	5.000	4
이장	3.593	0.938	1.000	5.000	2

주. 5점 리커트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기여도가 높음

2. 마을 이미지 및 개선과제에 대한 조사

마을의 이미지 및 개선과제에 대한 조사에서는 '마을 이미지에 대한 인식', '마을의 현황에 대한 인식의 정도', '마을 현황 중 우선 순위 파악', '마을 현황 중 중요 요인 조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각 주체의 중요성 정도'로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1) 마을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 조사

관인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의한 관인면에 대한 이미지, 즉 자신의 마을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한 지를 〈표 6〉과 같이 살펴보았다.

'지역주민에 의한 마을이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3.593으로 가장 긍정적이었고, '외부인에 의한 마을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3.500, '10년 내에 마을이 지금보다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3.294, '앞으로 5년 내에 마을이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3.211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주민들은 마을의 전망과 이미지에 대하여 다소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표 6〉 마을 이미지에 대한 인식 조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결측(N)
① 지역주민에 의한 관인면 마을이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정도	3.593	0.938	1.000	5.000	2
② 외부인에 의한 관인면 마을이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정도	3.500	0.991	1.000	5.000	2
③ 앞으로 5년 내에 마을이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정도	3.211	1.195	1.000	5.000	1
④ 앞으로 10년 내에 마을이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정도	3.294	1.242	1.000	5.000	1

주. 5점 리커트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이미지에 대한 인식도가 높음

2) 마을의 현황에 대한 인식 조사

현재 관인면은 매우 낙후가 된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이 마을에 현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향후 마을재생사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마을의 현황은 〈표 7〉과 같이 1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마을 현황에 대한 세부 분석 결과, 긍정적 인식 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긍정적으로 인식한 분야는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함'이 3.533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로·교통 등 거주하기 편리함'은 3.248, '마을일 처리 조직 및 기구 운영이 원활함'은 3.204, '주민들의 다양한 모임이 활성화됨'은 3.083, '주택 및 주거환경이 좋음'은 3.055 순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부정적으로 인식한 분야는 '문화·여가여건이 좋음'이 2.367로 가장 낮았으며,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한 여건이 좋음'은 2.380, '소득이 많음'은 2.472, '아이들 교육여건이 좋음'은 2.481, '주민복지여건이 좋음'은 2.685, '주민건강서비스지원이 많음'은 2.787, '주민참여의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함'은 2.843, '주민공동체의 활성화'는 2.963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7〉 마을 현황에 대한 인식 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결측(N)
① 도로·교통 등 거주하기 편리함	3.248	0.884	1.000	5.000	1
② 소득이 많음	2.472	0.795	1.000	5.000	4
③ 주택 및 주거환경이 좋음	3.055	0.901	1.000	5.000	1
④ 주민공동체의 활성화	2.963	0.990	1.000	5.000	1
⑤ 문화·여가여건이 좋음	2.367	1.103	1.000	5.000	1
⑥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한 여건이 좋음	2.380	0.934	1.000	5.000	2
⑦ 아이들 교육여건이 좋음	2.481	0.962	1.000	5.000	2
⑧ 주민복지여건이 좋음	2.685	0.983	1.000	5.000	2
⑨ 주민건강서비스지원이 많음	2.787	0.977	1.000	5.000	2
⑩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함	3.533	0.914	1.000	5.000	3
⑪ 주민들의 다양한 모임이 활성화됨	3.083	1.073	1.000	5.000	1
⑫ 마을일 처리 조직 및 기구 운영이 원활함	3.204	0.974	1.000	5.000	2
⑬ 주민참여의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함	2.843	1.060	1.000	5.000	2

주. 5점 리커트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식도가 높음

3) 마을의 현황에서 중요한 요인 조사

앞의 〈표 7〉에서 조사한 마을의 현황들 중 주민들이 스스로 순위를 정해 어떠한 것이 마을의 현황으로 중요한 지 〈표 8〉과 같이 살펴보았다. 총 1~4순위까지 순위를 정하는 문항으로 주민들이 어떤 것부터 우선시 생각하고, 인식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마을 현황 중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요인 중 1순위는 소득으로 30명(27.3%)이 선택했으며, 그 뒤로 주민공동체의 활성화 12명(10.9%), 주택 및 주거환경, 아이들 교육여건이 각각 9명(8.2%)이 1순위로 응답하였다. 2순위로는 '아이들 교육여건'과 '주민복지여건'이 각각 13명(11.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소득'과 '주택 및 주거환경'의 응답이 11명(10.0%), '주민공동체 활성화' 9명(8.2%)이 2순위로 응답하였다. 3순위는 '문화·여가여건'과 '도로·교통의 편리함'이 각각 12명(10.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소득' 11명(10.0%), '주민복지여건' 10명(9.1%)이 3순위로 응답하였다. 종합하면, 관인면 지역 주민이 생각하는 마을 현황의 요인 중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은 '소득'을 가장 우선순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 순위는 '교육', '복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고, 마지막은 '문화·여가여건', '도로·교통의 편리함'을 생각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소득, 복지, 교육, 문화, 교통'의 요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마을 현황에서 중요한 요인 순위 조사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도로·교통 등 거주하기 편리함	8	7.3	3	2.7	8	7.3	12	10.9
소득이 많음	30	27.3	11	10.0	11	10.0	4	3.6
주택 및 주거환경이 좋음	9	8.2	11	10.0	7	6.4	3	2.7
주민공동체의 활성화	12	10.9	9	8.2	4	3.6	3	2.7
문화·여가여건이 좋음	4	3.6	5	4.5	12	10.9	6	5.5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한 여건이 좋음	6	5.5	8	7.3	1	0.9	3	2.7
아이들 교육여건이 좋음	9	8.2	13	11.8	7	6.4	7	6.4
주민복지여건이 좋음	4	3.6	13	11.8	10	9.1	10	9.1
주민건강서비스지원이 많음	1	0.9	4	3.6	9	8.2	10	9.1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함	3	2.7	5	4.5	9	8.2	8	7.3
주민들의 다양한 모임이 활성화됨	0	0	1	0.9	4	3.6	3	2.7
마을일 처리 조직 및 기구 운영이 원활함	1	0.9	3	2.7	5	4.5	5	4.5
주민참여의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함	4	3.6	4	3.6	3	2.7	6	5.5
무응답	19	17.3	20	18.2	20	18.2	30	27.3
계	110	100.0	110	100.0	110	100.0	110	100.0

1순위 소득이 30명
2순위 교육, 복지가 13명으로 동률
3순위 문화·여가여건, 도로·교통이 12명으로 동률

4)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체별 중요도 조사

관인면을 향후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은 어느 주체가 가장 중요하고,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지 〈표 9〉와 같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면장, 이장, 공무원'이 4.423로 가장 중요하다 인식하였다. 그리고 '포천시'가 4.308, '일반 지역주민'은 4.208, '상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주민조직'은 4.078, '경기도'는 4.000 순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인식하였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3.990, '지역학교(초중고)'는 3.922, '주민자치위원'은 3.871, '중앙정부'는 3.700, '사회복지관 등 복지관련기관'은 3.670, '마을 내(혹은 지역관련) 사업체 및 기업'은 3.434, '주민권익옹호 시민단체'는 3.141 순으로 보통이상으로 중요하다 인식하였다. 반면, '마을 내 종교기관'에 대한 중요성은 보통 이하(2.70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9〉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체별 중요도 조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결측(N)
중앙정부	3.700	1.159	1.000	5.000	10
경기도	4.000	0.980	2.000	5.000	7
포천시	4.308	0.825	2.000	5.000	6.
지방의회의원	3.990	0.879	2.000	5.000	12
면장, 이장, 공무원	4.423	0.821	2.000	5.000	6
일반 지역주민	4.208	0.832	2.000	5.000	14
상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주민조직	4.078	0.837	1.000	5.000	7
주민자치위원	3.871	0.966	1.000	5.000	9
마을 내 종교기관	2.700	1.150	1.000	5.000	10
마을 내(혹은 지역관련) 사업체 및 기업	3.434	1.051	1.000	5.000	11
사회복지관 등 복지관련기관	3.670	0.933	1.000	5.000	10
주민권익옹호 시민단체	3.141	1.152	1.000	5.000	11
지역학교(초중고)	3.922	0.961	1.000	5.000	8

주. 5점 리커트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주체별 중요도가 높음

3. 추억의 골목상가 문화재생사업에 대한 인식조사

1) 중심상점가 형성의 역사적 배경 인지에 대한 조사

관인에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인의 중심상점가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중심상점가의 형성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는 여부를 〈표 10〉과 같이 살펴보았다. 중심상점가 형성에 관한 역사적 배경 인식 여부에 대한 응답은 '대강 알고 있다'이상이 65명(59.1%), '잘 모른다'이하는 30명(27.2%)의 응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어느 정도는 중심상점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대강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잘 모른다'라는 응답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즉, 역사적 배경에 대한 부분도 본 사업인 '문화재생'의 한 부분으로 충분히 구성이 되기에 사업 추진 시 역사적 배경 인식 부분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표 10〉 중심상점가 형성에 관한 역사적 배경 인식 여부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보통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무응답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4	21.8	41	37.3	12	10.9	25	22.7	5	4.5	3	2.7	110 /100.0

2) 문화재생사업을 통한 성취 욕구조사 사항

'문화재생'을 통한 도시활성화 재생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은 어떠한 부분이

개선이 되거나, 성취가 되길 바라는 지 〈표 11〉과 같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서 '마을의 인구 수 증가' 응답이 43명(39.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청년 등 관광객 수 증가', '일자리 창출'의 응답이 18명(16.4%), '상점가 활성' 16명(14.5%)의 응답을 보인다. 지역 주민들은 문화재생사업을 통해서 '마을 인구수 증가'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재생사업은 본 사업의 목적이 인구수 증가를 바로 이루어내는 사업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문화재생을 통해서 도시의 발전, 활성화를 꾀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시 어느 정도의 사업의 목적과 주민들의 욕구의 조정이 필요하고, 문화재생사업은 인구수 증가를 바로 이루어내는 사업이 아니며 사업을 통한 '마을 인구수 증가'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목표이고 장기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인식을 주지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표 11〉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부분 응답 분포

구 분	빈 도	비율(%)
마을 인구수 증가	43	39.1
청년 등 관광객 수 증가	18	16.4
상점가 활성	16	14.5
일자리 창출	18	16.4
기타의견	2	1.8
무응답	13	11.8
계	110	100.0

기타의견 : 위의 문항 전부 동시에 이루고 싶어 함

3) 문화재생사업을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분야 조사

문화재생사업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은 우선적으로 어떠한 분야의 시행을 바라는 지 살펴보고, 이로 인해 향후 문화재생사업이 2차, 3차 년도 계획을 시행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표 12〉와 같이 살펴보았다. 다중 응답 문항으로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응답의 분포는 '마을투어 상품개발'이 47명(42.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특산품개발' 42명(38.2%), '주민역량강화교육' 39명(35.5%), '문화경관 만들기'의 응답이 27명(24.5%), '문화시설 만들기' 25명(22.7%) 순의 응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생각하는 문화재생사업에서 우선시 되어야할 부분은 '마을투어 상품개발'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문화재생사업도 이러한 응답 결과에 맞추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12〉 문화재생사업을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분야 조사

구 분	빈도		응답 총계	비율(%)		비율계
	선택	선택 안함		선택	선택 안함	
주민역량강화교육	39	71	110	35.5	64.5	100.0
마을역사의 조사 (예: 한국전쟁과 마을 미군주둔 등)	17	93	110	15.5	84.5	100.0
생활예술의 조사 (예: 방앗간, 다방 등 생활문화 등)	7	103	110	6.4	93.6	100.0
문화경관 만들기 (예: 색채 등을 이용한 골목재생 등)	27	83	110	24.5	75.5	100.0
문화시설 만들기 (예: 마을문화센터조성 등)	25	85	110	22.7	77.3	100.0
청년층 선호 문화 조성	24	86	110	21.8	78.2	100.0
마을투어 상품개발	47	63	110	42.7	57.3	100.0
지역특산품개발	42	68	110	38.2	61.8	100.0
기타의견	4	106	110	3.6	96.4	100.0

기타의견: 주민역량교육 문항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다른 문항들까지 확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집 앞 꽃밭 가꾸기 등 아름다운 환경조성

4) 문화재생사업을 위해 참여하고 싶은 분야 조사

관인면 중심상점가의 활성을 위한 문화재생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면 만약 어디에 참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 〈표 13〉과 같이 살펴보았다. 향후에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이러한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참여를 더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표 13〉 문화재생사업을 위해 참여하고 싶은 분야 조사

구 분	빈 도	비율(%)
주민역량강화교육	24	21.8
마을역사의 조사 (예: 한국전쟁과 마을 미군주둔 등)	7	6.4
생활예술의 조사 (예: 방앗간, 다방 등 생활문화 등)	1	0.9
문화경관 만들기 (예: 색채 등을 이용한 골목재생 등)	19	17.3
문화시설 만들기 (예: 마을문화센터조성 등)	9	8.2
청년층 선호문화 조성	9	8.2
마을투어 상품개발	19	17.3
지역특산품개발	10	9.1
기타의견	2	1.8
무응답	10	9.1
계	110	100.0

기타의견 : 마을 청결을 위해 내 집 앞 쓰레기를 스스로 치우기

중심상점가의 활성을 위한 문화재생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분야는'주민역량강화교육'이 24명(21.8%)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경관 만들기', '마을투어 상품개발'이 19명(17.3%), '지역특산품 개발' 10명(9.1%)의 응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사업 시행 시 일전의 항목에서 '마을투어 상품개발'을 고려하면서, '주민역량강화교육'을 동시 진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문화재생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인식 조사

향후 문화재생사업의 2차 년도, 3차 년도 계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이 되길 바라는 지 주민들의 생각을 살펴보기 위해 〈표 14〉와 같이 살펴보았다.

'주민과 지자체 협력으로'라는 응답이 80명(72.7%)으로 과반수를 넘어 거의 대부분 응답을 해주었으며, 그 다음으로 '지자체 등 관 주도로'의 응답이 15명(13.6%), '주민자치적으로' 4명(3.6%)의 응답을 보였다. 이로 인해 문화재생사업의 추진 방식은 주민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14〉 문화재생사업의 추진 방식 조사

구 분	빈도	비율(%)
주민자치적으로	4	3.6
지자체 등 관 주도로	15	13.6
주민과 지자체 협력으로	80	72.7
무응답	11	10.0
계	110	100.0

6) 추억의 골목상가 문화재생사업의 성공할 수 있는 요인 조사

지역주민에게 추억의 골목상가 문화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표 15〉와 같이 살펴보았다. 이러한 우선순위를 통하여 문화재생사업의 시행 시 좀 더 주민이 인식하고 중요시 여기는 응답을 고려한다면 더욱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문화재생사업의 성공 요인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1순위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의 응답이 63명(57.3%)으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2순위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42명(38.2%), 3순위로는 '주민자치회, 상인회, 청년회 등의 리더십'으로 26명(23.6%), 4순위로는 '시민단체의 협력'이 29명(26.4%), 마지막 5순위에 대한 응답은 '외부 문화재생전문가의 도움'으로 37명(33.6%)이 응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생각하는 문화재생사업의 성공 요인으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문화재생사업의 성공 요인 조사

구 분	빈 도		비율(%)
중앙정부와 지자체(경기도, 포천시)의 전폭적인 지원	1순위	63	57.3
	2순위	7	6.4
	3순위	12	10.9
	4순위	5	4.5
	5순위	7	6.4
	무응답	16	14.5
	계	110	100.0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1순위	23	20.9
	2순위	42	38.2
	3순위	19	17.3
	4순위	4	3.6
	5순위	0	0
	무응답	22	20.0
	계	110	100.0
주민자치회, 상인회, 청년회 등의 리더십	1순위	7	6.4
	2순위	21	19.1
	3순위	26	23.6
	4순위	25	22.7
	5순위	7	6.4
	무응답	24	21.8
	계	110	100.0
시민단체의 협력	1순위	2	1.8
	2순위	8	7.3
	3순위	14	12.7
	4순위	29	26.4
	5순위	32	29.1
	무응답	25	22.7
	계	110	100.0
외부 문화재생전문가의 도움	1순위	2	1.8
	2순위	11	10.0
	3순위	12	10.9
	4순위	21	19.1
	5순위	37	33.6
	무응답	27	24.5
	계	110	100.0

7) 문화재생사업 시행 시 필요한 지원 조사

향후 문화재생사업의 시행 시 관인면을 성공적으로 문화재생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원에 대해 〈표 16〉과 같이 살펴보았다.

문화재생사업의 시행 시 관인면에서 제일 필요한 지원 요인에 대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1순위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의 응답이 48명(43.6%)으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2순위로는 '재생사업을 위한 운영경비 및 설비 등 사업비 지원'은 31명(28.2%), 3순위로는 '지역

주민 등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지원'으로 33명(30.0%), 4순위로는 '외부 문화재생전문가의 도움'이 45명(40.9%), 마지막 5순위에 대한 응답은 '대학 등 연구기관의 지원'으로 54명(49.1%)의 응답을 보였다. 지역 주민들의 경우 일전의 응답과 비슷한 분포로 앞으로 문화재생사업시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 , '재생사업을 위한 운영경비 및 설비 등 사업비 지원' , '지역주민 등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지원' , '외부 문화재생전문가의 도움', '대학 등 연구기관의 지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경우 문화재생사업에 있어서 전폭적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문화재생사업시 필요한 지원의 우선순위 응답 분포

구 분	빈 도		비율(%)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	1순위	48	43.6
	2순위	24	21.8
	3순위	11	10.0
	4순위	5	4.5
	5순위	5	4.5
	무응답	17	15.5
	계	110	100
재생사업을 위한 운영경비 및 설비 등 사업비 지원	1순위	29	26.4
	2순위	31	28.2
	3순위	17	15.5
	4순위	10	9.1
	5순위	7	6.4
	무응답	16	14.5
	계	110	100
지역주민 등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지원	1순위	14	12.7
	2순위	19	17.3
	3순위	33	30.0
	4순위	14	12.7
	5순위	9	8.2
	무응답	21	19.1
	계	110	100
외부 문화재생전문가의 도움	1순위	4	3.6
	2순위	7	6.4
	3순위	18	16.4
	4순위	45	40.9
	5순위	13	11.8
	무응답	23	20.9
	계	110	100
대학 등 연구기관의 지원	1순위	3	2.7
	2순위	8	7.3
	3순위	10	9.1
	4순위	13	11.8
	5순위	54	49.1
	무응답	22	20.0
	계	110	100

4. 시사점

분석결과를 통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주민들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돈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들의 마을에 대해 어느 정도 좋은 이미지와 인식을 가지고 있고, 미래의 마을이미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주민의 연대의식과 마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향후 성공적 지역 재생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마을 현황에 대한 주민 인식이 긍정적인 분야는 안전과 주거환경, 교통여건, 시민들 간의 교류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인식한 분야는 소득, 문화, 육아 및 교육, 보건 및 복지 분야 등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 볼 수 있다. 종교기관을 제외하면, 12개의 주체들 모두 보통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주체 간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라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문화재생사업은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 상향식의 대면적 집행이 요구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심점 역할은 필요하다. 지역 주민과 대면적 접근가능성이 높은 '이장' 혹은 '면장'을 통하며, '주민 패널'을 통해 주도적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하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주민 간의 갈등은 면장이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추후에 시에서나 다른 주체들이 문화재생사업 이외의 다양한 사업으로 관인면 중심상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이 될 경우에도 주민과의 면밀한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문화재생 사업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은 '마을투어 상품개발'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분야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의 76.4%가 20년 이상 거주한 주민임을 고려할 때, 지역의 실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문화재생사업도 이러한 응답 결과에 맞추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문화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이나 '재생사업을 위한 운영경비 및 설비 등 사업비 지원' 등과 같은 물질적인 지원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5. 성공적인 추억의 골목상가를 만들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제언 사항

1) 사업시행 및 중심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제언 사항

앞선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마을 재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이장' 혹은 '면장'이 지역주민과 주도적인 소통 채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마을 재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마을투어 상품개발'이다. 끝으로, 주민들의 역량 강화 교육과 정부(중앙 및 지방)의 구체적 지원 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에 기반 하여 성공적인 추억의 골목상가를 만들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제언 사항을 사업시행 시와 중심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제언 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17〉과 같다.[1)]

〈표 17〉 사업시행 및 중심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제언 사항

제 언 사 항	
사업 시행 경우	·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동의 후 사업 추진 ·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진행 · 관내에 있는 6사단을 적극 활용하여 상가의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모색
중심상점가 활성화 경우	· 마을의 옛것을 발굴·개발하여 외지인들에게 볼거리, 먹거리 제공 · 당일 또는 1박 농촌투어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 관광지와 연계하기 위해 시골 토요장터 개설, 추억의 방앗간, 이발소, 대장간 등 옛 시장 및 5일장의 활성화 · 도로변 건물을 예쁘게 색칠하고 폐가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 정리하며, 도로 제초작업, 아이들을 위한 쉼터, 안락한 북카페, 분식점, 제과점 등의 시설 필요 · 추억의 사진관, 산위에 있는 이발관, 연탄배달, 떡 방앗간 등 6~70년대를 회상할 수 있는 옛 추억의 간판으로 거리를 조성함과 동시에 현대적인 편의성 도모 · 밝은 조명의 거리 및 자전거 도로가 의정부시, 포천시, 관인면까지 연결 · 봉숭아, 과꽃, 맨드라미, 붓꽃 등 사라져가는 정겨운 꽃으로 아름다운 경관 조성 · 관광 코스를 만들어 유명 관광지, 상가와 주변 맛집, 역사유래, 상품 사진, 이동거리 등 상세 설명이 들어간 문화관광도 작성

2) 경기도, 포천시 등 지자체에 대한 제언 사항

성공적인 추억의 골목상가를 만들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경기도, 포천시 등 지자체에 대한 제언 사항을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

---

1) 마을 만들기 성공을 위한 구체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지역의 실정에 밝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인터뷰 대상은 지역 내 20년 이상 거주한 주민 12명이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인터뷰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신분은 밝히지 않았다.

〈표 18〉 지역주민들의 지자체에 대한 제언 사항

제 언 사 항
· 지장산 마을까지 노선버스를 운행하여 등산객들이 편리하게 마을 구경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소모적이고 일회성 행사를 추진하여 인적·물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 면과 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함으로써 면민의 신뢰를 얻는 행정 구현과 전폭적인 행정·재정지원요구 · 낙후된 관인면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도청, 시청, 면, 의원 등 지도층의 많은 관심 필요 · 주민역량강화교육들을 통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마을투어상품개발, 문화경관조성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행정적 지원과 사업비 지원 · 각종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인식하여 법적 범위 내에서의 최대 지원 요구

Ⅳ. 관인면의 지역발전을 위한 재생수단의 선택

독특한 역사와 개성이 있는 관인면의 내일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시기에 와있다. 현재 남아있는 주민들은 비교적 정주의식이 강하고, 자가농이나 자영업, 혹은 안전 자산이 있는 구성원이란 점도 그 이유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관인면 외부로부터의 환경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더 큰 요인이며, 재생수립방향이 섰다면 어떤 지역발전수법을 선택할까 하는 점이 관건이다. 그동안 지역발전의 이론의 체계를 돌이켜보면 대체로 근대화이론, 최소수요이론, 신자유주의에 의한 시장주의를 거쳐 최근에는 지속가능이론, 사회적 자본이나 문화예술에 의한 창조적 접근까지 발전해 왔다.

관인면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발전의 근거가 되었던 근대화 이론에 의한 혜택을 못 받은 것이 저발전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 이론의 시대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관인면에 대한 주류 정치의 시각은 별로 달라질 게 없다. 인구수에 기초하고, 투자효과에 기초하는 전통적 방식의 지역발전정책이라면 관인면이 앞으로도 기댈 것은 거의 없다. 하지만 내생적 발전요소들을 잘 결합하고, 이를 토대로 외생변수들에 대한 도움을 얻는 다면 관인면 중심상점가의 발전을 견인차로 한 관인면 전체의 발전으로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관인면 주민들의 내생적 발전의지를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문화예술에 의한 지역발전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예술에 의한 도시재생수법을 도입하여 성공을 거둔 많은 사례들이 있다. 영국의 게이츠헤드시가 80년대 전후에 철광과 석탄 산업이 지역이 쇠퇴한 것을 세이지음악당과 발틱현대미술관을 지으면서 재생에 성공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전주시가 한류문화를 도입하는 정책으로 한옥, 한식, 한복을 도시발전의 중심에 놓으면서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기도 하다. 관인면과 같은 규모의 사례로는 일본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오시마군은 예술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세계로부터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으며, 이탈리아 부르노섬은 베니스로부터도 1시간 이상 배를 타고 기여하지만 색채를 거리에 입히는 예술정책으로 지역 활성화를 성공시키고 있다. 같

은 접경지역인 화천군은 화천천을 이용하여 산천어축제를 성공시킴으로써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발전의 요소가 문화예술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도로로 대표되는 접근성, 자본으로 대표되는 투자효율성, 권력으로 대표되는 정치성이 없는 관인으로서는 풍부한 서사구조와 자연환경에 더하여 문화예술에 의한 지역재생을 도모하는 것은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에 가깝다. 지역주민들 중에는 농업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생활예술의 담지자들이 있고, 사진가·생태운동가·향토사가 등이 있는 내생적 창조자원들과 외부로부터 지원하는 문화세력의 도움으로 이를 지역재생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V. 결론 : 문화프로그램의 제안

문화예술이 지역발전이나 도시계획의 수단으로 도입될 때 장점은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성을 강화시키고, 주민참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도시 계획가들의 모임에서도 각 도시 및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지역에 수단으로 도입하였을 때 나타나는 장점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문화예술의 방법은 전통적인 지역발전의 방법보다 더욱 효과적인 도구를 제공한다.

문화예술을 관인면 중심상점가의 문화재생 사업에 도입하는 방법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유산과 역사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나타내는 증표는 문화를 개발하고 보존하는 능력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데 있다. 즉 자신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시대에 맞게 새롭게 문화적 표현을 개발해낸다는 데 있다. 지역사회에 축적된 과거 문화의 유산과 문화적 관습을 기록하고, 마을원로들의 이야기를 적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와 유품 혹은 물품들을 보존하는 것이다. 또 이를 재해석하여 마을 만들기의 중요자원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장소 만들기와 공동체의 특성을 살려가는 것이다. 공동체의 기억이 살아있는 장소가 어느 지역이나 있게 마련이다. 광장이나 문화센터, 박물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관공서 등은 장소 만들기에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이들 장소를 문화예술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심미성과 화제성, 그리고 이용도를 높이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동체의 참여와 주민 간의 관련성을 높여나가는 방법이다. 공동체의 참여에 문화예술의 방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시각적 방법, 즉 영상기술, 스토리텔링, 축제, 전시회, 댄스, 강연, 음악, 공연, 웹기반 전시, 그리고 공동체 모임과 같은 창조적인 도구를 활용함을 의미한다. 문화예술의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쉬운 참여와 관계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지역발전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더 쉽게 얻어낼 수 있게 해준다(허훈, 2014).

넷째,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키우는 데도 문화예술을 활용할 수 있다. 예술을 감상하든가 혹은 생활예술품 등을 공동체에서 배우고 만드는 가운데 이웃주민들과의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또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여 상호협력의 장을 설계하기가 용이해지면서 공동체의 협력능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에 의한 지역재생이 만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역자체가 예술작품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술도 삶과 얽혀있지 않으면 지역재생의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없다. 문화예술을 관인면의 지역재생수법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철저히 지역주민들의 수용의지에 기반 해야 함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이나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도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삶과 얽혀있는 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관인면 상점가의 상인들과 주민들이 선택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목표의 합목적성과 그 재생성에 있다. 문화예술을 수단으로 하는 재생수법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인 비전은 공동체의 삶이 조화되어야 한다. 관인면 상점가 상인들의 중심연령이 50대 후반에서 60대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가장 절실한 것은 삶의 복지요 안정된 소득이라 할 수 있다.

관인면의 비전 혹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에 의한 재생사업에 임하는 주체들은 공동체가치와 관인면을 둘러싼 장엄한 생태가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외부지지 세력의 협력 그리고 자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행동 가치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비전과 행동 원칙 하에서 중심상점가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전략목표 속에서 수행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첫째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가치에 기반 한 삶의 예술이 지역 활성화로 연결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 둘째 내적으로 부족한 문화예술역량을 도와주는 외부그룹과의 협동형 문화이벤트, 셋째 관인면의 자존감을 높여나가고 문화관광매력을 만들기 위한 경관 만들기, 넷째 주민과 지지그룹이 모여 논의하고 역사기록을 축적해나갈 수 있는 문화장소 및 시설 만들기 등을 말한다. 이들 전략목표아래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단계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선직. (2009). 「마을 만들기의 전략적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8-30.

김영주·박남희. (2012).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관점에서 본 일본의 마을 만들기 사례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133-146.

문종화. (2012). 마을 만들기 사례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한국과 일본사례

를 중심으로.「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37(1): 21-31.

송용훈·정문기. (2017).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장수마을과 산새마을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33-66.

신중진·송승현. (2010).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 한 추진주체의 관계구도 특성 연구.「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6(1): 295-307.

신중진·신효진. (2008).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계획과 정에 관한 사례 연구.「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4(2): 109-120.

신화경·조인숙·지예진. (2017). 마을 만들기 활성화 관점에서 본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 특성에 관한 연구.「한국주거학회논문집」, 28(3): 23-33.

심익섭·심화섭. (2016). 마을 만들기 연구경향의 분석과 과제.「국가정책연구」, 30(1): 29-48.

안상유. (2013). 정부 3.0 실천을 위한 마을사업 운영과 개선방안.「경남발전」, (128): 77-90.

안종현. (2007). 주민참여에 의한 농촌관광마을 만들기: 장흥군 진목마을을 사례로.「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2): 197-210.

여관현·계기석. (2013). 지방자치단체 마을 만들기 조례의 제정 방향 연구.「도시행정학보」, 26(4): 241-270.

이민우·이명식·정성원. (2016).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참여자 간 갈등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2(1): 117-128.

이병대·심재승. (2012).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를 통한 구도심 재생에 관한 연구.「한국지적정보학회지」, 14(2): 183-206.

이석현. (2012). 마을만들기의 효율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Archives of Design Research」, 25(3): 162-171.

이재준·김도영·박상철. (2013).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사례분석 연구-일본 나오시마와 수원시 행궁동 사례를 중심으로.「국토지리학회지」, 47(1): 23-35.

이지혜·이명훈·전병혜. (2009).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도에 관한 영향구조 분석.「국토계획」, 44(1): 73-85.

임경수·하태영. (2013).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사회적 기업연구」, 6(1): 83-95.

임남기·이태문. 민간참여에 의한 지속적인 마을 만들기 사례연구-부산광역시 안창마을 재생사업을 중심으로.「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9(3): 37-48.

임상오 역. (2005).「창조도시」, Charles Landry, 해남.

전원식·김남두·황희연. (2008).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의 사업주제 및 추진주체 분석.「도시설계」, 9(4)(통권 제33호): 131-149.

조소진·정환영. (2017). 역량강화 중심의 마을 만들기 참여에 따른 주민인식변화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1): 89-105.

진재문. (2014).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활성화 노력과 삶의 질의 관계 :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5): 340-372.

허 훈. (2014). 문화예술에 의한 지역만들기의 효용에 관한 사례비교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3): 317-342.

日本建築學會. (2004). まちづくりの方法, 丸善.

http://www.gri.re.kr/ (경기연구원)

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부)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http://www.pocheon.go.kr/ (포천시)

접수일(2017년 10월 19일)

수정일(2017년 12월 01일)

게재확정일(2017년 12월 07일)